

□ 産油国동향 □

멕시코의 石油수출 및 油價정책

지난 해까지 최고 수준을 보이던 멕시코의 産油量 및 수출량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價格政策에서 OPEC를 지지했던 멕시코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OPEC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市場連繫價格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1984년까지 멕시코의 석유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1982~1984년 기간중 Isthmus 原油 등 輕質油의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Maya油를 비롯한 重質油의 생산이 늘어나 수출목표인 1.5백만b/d가 무난히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세계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石油수출 및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멕시코의 原油수출량은 1.34백만b/d로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되었다. 또한 石油製品수출이 점차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石油수출중 제품의 비중은 5% 미만이어서 수출목표 달성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정제 능력은 1.35백만b/d로서 國內需要分인 1.1백만b/d를 제외한다면 전체 製品수출능력은 12~15만b/d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石油生産 및 수출실적

(單位：千b/d)

	1981	1982	1983	1984	85. 1~6月
産油量	2,554	3,003	2,954	3,056	2,988
原油	2,312	2,746	2,666	2,684	2,718
N G L	242	256	288	371	270 ¹⁾
輸出	1,154	1,526	1,604	1,604	N. A
原油	1,098	1,492	1,537	1,525	1,338
製品 ²⁾	56	34	67	79	N. A

註：1) condensate 제외함.

2) 純輸出임.

〈資料〉Petroleum Economist, 85/9

지난 해까지만 해도 OPEC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던 멕시코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油價政策을 변

경하였다.

첫째는 現物市場의 가격변동에 맞추어 수출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自國産 輕質原油인 Isthmus Blend(API 34°)의 가격을 이와 유사한 油種인 사우디의 Arab Light의 가격과 일치시켜 지난 해까지 약 2년 동안 배럴당 29달러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OPEC가 금년 1월총회에서 Arab Light의 가격을 1달러 인하하자 멕시코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1.25달러) Isthmus의 가격을 인하하였다.

둘째는 지역별 差等油價制度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는 금년 6월들어 原油수출이 1백만b/d에도 미달하게 되자 유럽·아시아지역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수출가격을 결정하고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輸出油價

	Isthmus(API 34°)	Maya(API 23°)
美 國	\$ 26.75/b fob	\$ 23.50/b fob
아 시 아	\$ 26.50/b fob	\$ 23.00/b fob
유 럽	\$ 26.25/b fob	\$ 22.50/b fob

멕시코는 세계 石油매장량의 6.9%인 486억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84년 생산량 기준으로 가채기간은 45.2년에 달한다. 멕시코의 石油생산정책은 목표량인 1.5백만b/d의 수출과 年 3~5%로 증가하고 있는 國內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 생산능력은 3.0백만b/d로 추정된다.

지난 5年동안에 멕시코의 시추활동은 재정적 압박으로 크게 감소되었는 바, 국영석유회사(Pemex)의 試錐孔數는 1980년의 434개에서 1984년에는 287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Pemex社는 생산에 의한 매장량 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 5년간에 걸쳐 탐사에 중점을 두고 시추활동을 증대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다. *

〈Petroleum Economist〉